

2025 캄보디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인프라·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5
나. 최빈국 지위 졸업을 앞둔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다각화 추진	6
다. 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新산업의 부상	8
라. 중국의 對캄 투자 수요 회복에 따른 캄보디아 경제 회복	9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0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0
가. 정치 환경	10
나. 경제 환경	11
다. 산업 환경	13
라. 정책·규제 환경	18
2. 시장 분석	2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3
나. 교역	24
다. 투자	30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3
가. 교역	33
나. 투자 진출	37
다. 협력 유망 분야	39
III. 진출전략	42
1. PEST 분석	42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3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4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1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4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6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9

1. 개요

가. 시장 전망

□ (대외) 주요 국제금융기구, 2025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6%대 수준 전망

- (성장동력) 대외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회복, 관광객 증가 지속 등의 요인으로 2024년 경제상승률 대비 소폭 상승 기대

* (World Bank) ('24) 5.8% → ('25) 6.1%, (IMF) ('24) 6.0% → ('25) 6.1%, (ADB) ('24) 5.8% → ('25) 6.0%

- (불안요인) 글로벌 금융 긴축 지속 및 자국 건설 부문 국내 신용 집중, 정부·민간 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 안정성 위협의 하방 리스크 유의

〈주요 기관별 캄보디아 경제성장 전망치〉

(단위: %)

구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2022년	5.2	5.1	5.2
2023년	5.4	5.0	5.0
2024년	5.8	6.0	5.8
2025년	6.1	6.1	6.0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 (정부) 캄보디아 정부, 2025년 6.3% 경제성장률 전망

- 캄보디아 주요 교역 상대국^(EU, 미국, 중국)의 경기 회복, 봉제·비봉제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활성화에 따라 2025년 6.3%의 경제성장률 기록 전망

- 2025년 부문별로는 제조 7.7%, 서비스 6.3%, 농업 1.4% 성장 전망

* 연도별 캄보디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 ('22년) 5.2%, ('23년) 5.6%, ('24년) 6.0%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16.0	16.2	16.4	16.6	16.8	16.9	17.1	-
명목GDP	십억 달러	24.6	27.1	25.8	26.6	28.8	30.9	33.8	36.8
1인당 명목GDP	달러	1,587	1,671	1,578	1,625	1,760	1,844	1,919	2,059
실질성장률	%	7.5	7.1	-3.1	3.0	5.2	5.5	6.0	6.1
실업률	%	0.1	0.1	0.3	0.3	0.4	0.3	0.2	0.2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1.9	2.9	2.9	5.3	2.3	2.3	3.0
재정수지(GDP대비)	%	0.6	1.3	-5.9	-6.2	1.8	0.8	-2.8	-2.6
총수출	백만 달러	12,629	14,749	18,342	19,296	22,251	22,645	19,833 (9월)	-
(對韓 수출)	"	314	336	318	342	409	477	489(9월)	-
총수입	"	17,265	20,172	19,100	28,687	25,460	24,183	21,107 (9월)	-
(對韓 수입)	"	660	697	567	624	641	575	397(9월)	-
무역수지	백만 달러	-4,636	-5,423	-758	-9,391	-3,209	-1,538	-1,274	-
경상수지	"	-2,895	-4,067	-2,182	-12,624	-7,684	-3,726	-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4,051	4,061	4,093	4,099	4,102	4,111	4,100	4,107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24	1.02	1.27	0.92	1.5	1.5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2.13	36.63	36.25	34.83	35.79	39.59	-	-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EIU, IMF, ILO, UNCTAD, 캄보디아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신정부 출범 이후 인프라·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연결성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예상. 2029년으로 예정된 최빈국 지위 졸업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을 다각화하고, 정부 주도로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중점 육성할 것으로 전망. 캄보디아 경제 성장을 견인한 중국 투자가 회복하며 경제 회복 및 성장 가속 예상

가. 인프라·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 (현황)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

• 도로, 철도, 교량, 공항, 운하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 (도로) 캄보디아 제2의 고속도로가 될 프놈펜-바벳 고속도로는 길이 138km, 왕복 4차선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달러를 들여 2023년 착공, 2027년 완공 예정

*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22년 개통)에 이은 캄보디아 두 번째 고속도로

- (철도)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철도가 될 프놈펜-포이펫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완료, 그 외에 프놈펜-시아누크빌 철도 타당성 조사 진행

- (교량) 한-캄 우정의 다리(EDCF 차관 사업)는 설계 및 감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2025년 착공 및 2029년 완공 예정. 2023년 프놈펜 꼬 퍽-꼬 노리아 교량 완공

- (공항)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 2023년 10월 완공 및 개장, 프놈펜 신공항 2025년 중순 개장 예정

* 프놈펜 신공항은 도심에서 약 30~40km 떨어진 칸달주에 위치, 총 부지 면적 2,600헥타르 및 실제 공항 면적 700헥타르로 모두 3단계에 걸쳐 개항할 예정

- (운하) 캄보디아 최초의 메콩강 대운하 건설 착공 추진

※ 캄보디아 대운하(Funan Techo Canal) 건설 사업 추진

- 캄보디아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캄보디아 최초 내륙 수로 건설 사업 ('28년 완공 목표)
- 견달, 따께오, 캄똥, 까엡을 관통하는 약 17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총 180km 수로 건설 추진
- 공사는 총 두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프놈펜과 타이만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현황〉

부문	연월	추진현황
도로	2022.10	프놈펜-시하누크빌 고속도로 개통
	2023.06	프놈펜-바벳 고속도로 착공(2027년 완공 예정)
	2024.07	프놈펜-시엠립-포이땃 고속도로 F/S 완료(2024년 착공 예정)
교량	2023.08	프놈펜 제3외곽순환도로 개통
	2023.11	프놈펜 꼬 픽-꼬 노리아 교량 완공
	2024년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최종 사업평가 후 2025년 착공 예정
공항	2023.10	시엠립 신공항 완공 및 개장
	2025년	프놈펜 신공항 개장 예정(2025년 중순)

□ (효과) 인프라 개선으로 글로벌 연결성 강화 및 무역·투자 증대 기대

• 지속적인 인프라 향상 통해 무역 증대 및 對캄보디아 직접투자 증대 전망

-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 국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축 등으로 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 주요국과의 연결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예상
- 항공 부문 발전으로 관광·무역·투자 활성화 및 연결성 개선 전망

나. 최빈국 지위 졸업을 앞둔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다각화 추진

□ 2024년 UN의 최빈국 탈출 심사 시 캄보디아 최빈국 졸업 전망

• 2021년 캄보디아 최빈국 지위 졸업 자격 확인, 2024년 UN 재평가에서 기준 충족 시 2029년 최빈국 졸업 권고 예정

-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2029년부터 원조, 교역(일반특혜관세), 기술(지적재산권협정) 등 최빈국에 대한 혜택 점진적으로 축소 예상
-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성장 동력이었던 해외 원조 및 섬유·봉제 제품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EU의 EBA(Everything but Arms), 미국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영국의 DCTS(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등 무관세 및 무쿼터 혜택 활용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졸업 기준〉

- ① 1인당 국민총소득(GNI) 1,306달러 이상
→ (캄보디아) 1,546달러 수준으로 요건 충족
- ② 인적자산지수(Human Asset Index, HAI) 66점 이상
→ (캄보디아) 77.7점으로 요건 충족
- ③ 경제 및 환경 취약성 지수(Economic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dex, EVI) 32점 이하
→ (캄보디아) 23.3점으로 요건 충족

□ 고부가가치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 다각화 추진

• (제조업) 저임금 노동력 기반 → 기술 주도형 산업

- 최빈국 특혜 관세 및 저임금을 활용한 단순 임가공 위주 제조업에서 자동차·전자 부품 생산 허브 구축, 비봉제 품목 수출 비중 확대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산업 기반 다각화 추진 중

* 자동차 및 전자 부문 발전 로드맵(2022), 2015~2025 산업발전정책(2015) 발표 및 시행

• (농업) 원물 위주의 수출 →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집중

- (인프라) 농촌 개발, 생산 역량 강화, 유통 및 수출 기반 구축 등 농업 현대화 추진
- (가공업) 쌀, 캐슈넛, 망고 등 가공 분야 육성 및 관련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생산성) 고품질 종자 보급체계 구축, 상업 영농 확대, 비료·농기계 보급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산업구조 개편 및 시장 접근성 확대에 따른 GVC 참여 확대

• ‘중국 플러스 원’^(베트남·태국) 활용, 전자·자동차 등 캄보디아 정부 중점 육성 산업의 ‘인접국 플러스 원’ 제조 기지로 성장 가능

-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개선으로 베트남 및 태국과의 연결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 수출액 변화(달러) : (베트남) ('16) 2.2억 → ('23) 29.7억, (태국) ('16) 4.1억 → ('23) 8.2억

- 월평균 운영비*가 6.5만~22만 달러로 아세안 지역 중 미얀마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조 기지 운영에 용이(출처: EuroCham Cambodia)

* 임금, 임대료, 유틸리티, 물류비, 통신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

다. 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新산업의 부상

□ (디지털) 캄보디아 정부의 공공·민간 분야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부상

- 캄보디아 정부는 5각 전략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민간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 중

- 2024년 8월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National Single Window를 오픈하는 등 다수 부처에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중
- 캄보디아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간 디지털 비즈니스 촉진

* 2021~2035 디지털 경제 및 사회정책 프레임, 2022~2034 캄보디아 디지털정부 정책

- 핀테크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부문 급속히 성장 중

- 캄보디아는 높은 모바일 가입률, 디지털 결제 시스템(Bakong) 도입 등에 따라 최근 수년간 전자결제, 모바일 뱅킹 등 핀테크 산업 크게 성장하는 중

* 소매 전자결제액(리엘) : (2019년) 344조 → (2022년) 1,110조 (연평균 47.8% 증가)

* 모바일 뱅킹 거래액(리엘) : (2019년) 114조 → (2022년) 672조 (연평균 80.7% 증가)

- 2024년 초 캄보디아 최초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오픈했으며,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

□ (친환경)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캄보디아 정부는 2023년 말 중장기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그린투자’ 유치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 육성 추진

-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성 개선, 청정 기술 개발 및 환경 보호 등을 외국인 투자 유치 집중 분야로 선정
- 캄보디아 훈마넷 총리는 2024년 1월 그린 기술에 특화된 특별경제구역(SEZ)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Circular Strategy on Environment 2023~2028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와 적극 협력 추진

- 캄보디아 정부는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2024년 1월 파리협정 6조 운영 매뉴얼 발표하고, 6월에는 환경부 장관이 방한하여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우리나라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기준 개발 추진

라. 중국의 對캄 투자 수요 회복에 따른 캄보디아 경제 회복

□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견인한 중국의 투자 회복세

- 2023년 중국의 對캄보디아 투자 신고액 22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920% 상승
 - 팬데믹으로 위축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재개 등으로 2019년 투자 신고액 대비 약 72% 증가하며 완전한 회복세를 보임
 - 2023년 중국의 전체 해외 직접투자(ODI)는 1,479억 달러 기록하며 전년 대비 0.9% 증가, 對일대일로 파트너* 국가의 비금융 ODI는 22.6% 증가한 318억 달러 기록
- *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 * 전년 대비 對일대일로 파트너 국가에서의 M&A는 32.4%, 신규 EPC 프로젝트는 5.7% 증가

□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국 제2의 제조기지로 변모

- 중국 내 임금 및 운영비 상승 지속, 미-중 무역 경쟁 장기화로 우회 생산기지 수요 증가
 -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회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중국의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형 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 및 연결 강화
 - 공항,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비롯해 농업, 제조업, 유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 對캄보디아 투자 및 지원 증가
-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 세계 교역 분절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산업망 안정성 확보 노력 및 관련 투자 지속 확대 전망
 - 단, 부채, 디플레이션, 디리스팅, 인구 감소 등 중국 경제 둔화 장기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중국의 투자 확대로 캄보디아 경제 환경이 다시 중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중국은 차관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여 향후 채무의 함정 등 유의 필요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신정부 출범 후 1년간 정치적 안정세 유지 중. 교역, 투자, 내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6.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저임금 노동력 기반의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각화가 진행 중이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주도로 광범위한 개혁 추진 중

가. 정치 환경

□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 **입헌군주제 국가로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이 국가 원수**
 - 현 국왕은 아버지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전 국왕의 뒤를 이어 2004년 즉위 후 현재까지 국가 원수 지위 유지 중
 - *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이며, 정치적 실권은 총리가 행사
- **정부는 의원내각제의 형태로 운영되며, 총리가 국정 운영**
 - 총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다 득표한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행정수반으로서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짐
 - * 훈 센(Hun Sen) 전 총리가 38년간 집권한 이후 2023년 제7대 총선 이후 장남인 훈 마넷(Hun Manet)에 총리직 승계
- **의회는 국회와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채택**
 - 국회는 임기 5년 125석, 상원은 임기 6년 62석으로 구성

□ 신정부 출범 1년, 정치적 안정 지속 및 광범위한 제도 개혁 추진

- **(내각) 장기 집권 이후 신정부 출범 및 내각 구성원 전격 세대 교체에도 정치적 안정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
 - 내각 대다수가 서방 국가 유학 경험이 있어 정무의 디지털화, 업무 절차 효율화 등 제도 개혁 및 신규 정책 도입 활성화 예상

- (외교)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와의 교류 추진 및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유지 병행
 - 외교관계 다변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 반영
- (신사업) 고부가가치 산업 중점 육성, 인프라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 신성장동력 산업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추진

나. 경제 환경

□ 교역, 투자, 내수 회복에 따른 기대 소비심리 증가로 2024년 경제성장률 약 6.0% 수준 전망

-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도 2023년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관광 등 서비스업 수요 회복 가속화로 2024년 5.8~6.0%의 경제 성장 예상
 - 기존 주력 산업^(관광업, 봉제업, 농업 등)의 활성화와 신성장 산업^(비봉제 제조업, IT 등)의 성장, 빠르게 회복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FDI)가 소비시장 및 내수시장을 견인하여 경제 성장 가속화 전망

〈캄보디아 GDP 성장 동향〉

		2019	2020	2021	2022	2023
GDP(백만 달러)		27,089	25,872	26,961	29,504	31,772
GDP 성장률(%)		5.8	-3.1	3.0	5.2	5.5
부문별 GDP 성장률(%)	1차산업	-0.5	0.6	1.2	0.7	1.4
	2차산업	11.3	-1.4	9.4	8.3	4.8
	3차산업	6.2	-6.3	-2.7	3.5	8.0
1인당 GDP(USD, current prices)		1,671	1,577	1,625	1,759	1,875

자료: World Bank

-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는 취약한 경제구조
 - 대외 교역 및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둔화,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등 외부 충격에 취약
 - 특히, 산업 다각화 초기 단계로 주력 산업인 봉제업 등 글로벌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

□ 글로벌 교역 회복으로 2024년 9월 누계 기준 캄보디아 교역 큰 폭으로 증가

- 2024년 1~9월 교역액은 409억 3,9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
 - 수출은 198억 3,328만 달러(17.0% ↑), 수입은 211억 662만 달러(15.9% ↑)를 기록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12억 7,333만 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유지

〈캄보디아 대외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9월)
수출	14,749	18,342	19,296	22,251	22,645	19,833
수입	20,172	19,100	28,687	25,460	24,183	21,107
교역	34,921	37,442	47,983	47,711	46,828	40,940
무역수지	-5,423	-758	-9,391	-3,209	-1,538	-1,274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 캄보디아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일본, EU 등
 - (수출국) 미국, 베트남, 중국, 일본, 캐나다, EU, 영국 등
 - (수입국)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

□ 對캄보디아 내국인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세

- (총괄) 2022년부터 對캄보디아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중국의 투자가 전년 대비 149.4% 상승하며 투자 회복에 기여
 - 2024년 1분기 신고액 기준 투자 규모는 32억 5,700만 달러를 기록 중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급증
 - 신투자법^(21년), 시행령^(23년) 등 캄보디아 정부의 FDI 유입 활성화 노력으로 2024년 캄보디아 내 FDI는 393%, 신규 FDI 프로젝트는 110% 증가 전망

〈캄보디아 투자 승인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월
프로젝트 수		199	155	108	132	176	190
투자신고액 (Fixed Assets)	내국(캄보디아)	4,662	3,886	1,064	2,079	1,096	1,633
	외국(캄보디아 외)	3,498	3,643	655	1,151	2,716	1,624
	합계	8,160	7,529	1,719	3,230	3,812	3,257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국별) 중국이 對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으로 2023년 기준 22억 7,8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절대적 비중(59.8%) 차지
 - 내국인 투자(28.8%) 외 대만(3.4%), 홍콩(2.5%) 등 화교권 국가의 투자 비중이 높음

다. 산업 환경

□ 산업 개관

- 산업화 및 도시화로 1차산업 의존도가 낮아지고 2차·3차산업의 비중 확대

- 2022년 캄보디아 산업별 GDP 비중은 1차산업이 약 22%, 2차산업이 38%, 3차산업이 34% 기록

〈캄보디아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차산업	22.01	20.71	22.70	22.85	22.23
2차산업	32.29	34.23	34.56	36.83	37.90
3차산업	39.49	38.85	36.60	34.18	33.85

자료: Statista

- 캄보디아 주요 산업은 농업, 저임금 노동력 기반의 봉제·자전거·전자기기 등 제조업, 관광업, 건설 및 부동산업, 금융업 등

- 국내 기업의 對캄보디아 주요 진출 분야는 농업, 봉제업, 건설업, 금융업 등

□ 농업 및 농산업

- 농업은 캄보디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간 1% 내외로 성장 중

- 1차산업의 GDP 기여도는 산업화 영향으로 비중이 감소 추세이지만, 총 고용의 38.9%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주요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

- * 1차산업의 GDP 기여도 변화 : (2012) 34% → (2023) 22.1%

〈연도별 농업의 GDP 기여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GDP 기여도	20.7	22.7	22.8	22.2	22.1

자료: 캄보디아 농림수산물부(MAFF)

- 높은 가공비 및 기술 부족으로 원물 형태의 인근국 수출 위주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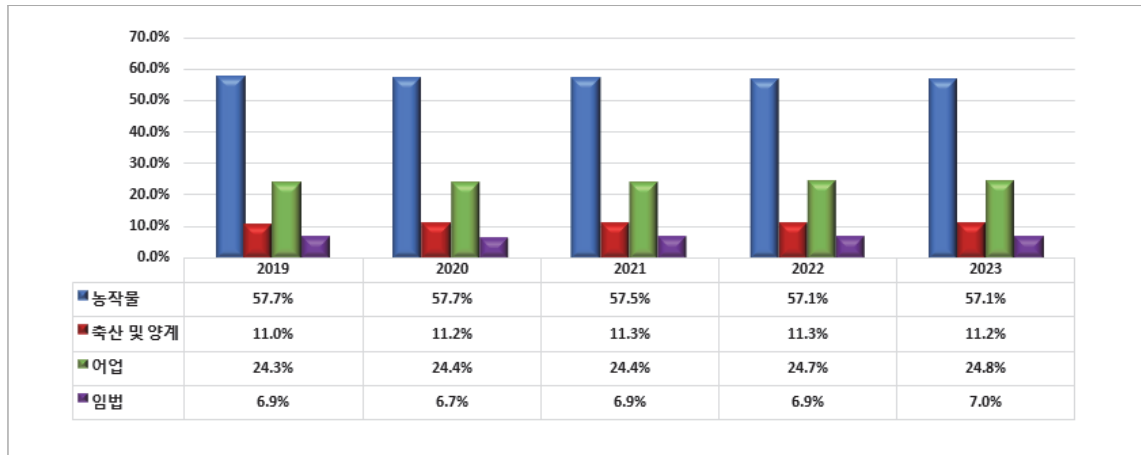
- * 캄보디아 내 농업 관련 주요 협회들을 통해 다수의 국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농산물 가공 분야 육성 및 투자 확대

-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오각 전략 1단계, 2022~2030 농업 개발 국가 정책에 맞춰 농업 부문의 발전 가속화 추진

- **농림수산업 세부 부문별로는 농작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23년 기준 작물 재배가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 24.8%, 축산 및 양계 11.2%, 임업 7.0% 비중 순

〈농림수산업 하위 부문별 비중〉



자료: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

- **2023년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은 845만 톤, 수출액은 48억 달러 기록**

- (수출품) 쌀, 바나나, 망고, 카사바, 캐슈넛, 옥수수, 팜오일, 후추, 고무 등
- (수출국) 중국, 베트남, 태국, EU 등

□ 제조업

- **저렴한 노동력 및 무역 특혜를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봉제업 발달**

- 캄보디아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인 의류·신발·여행용품(GFT) 제조업은 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GFT 제조국 중 4% 내외의 시장점유율 기록
- * 2024년 캄보디아 GFT 부문 최저임금은 월 204달러로 약 100만 명 수준의 고용 창출
- 2022년 하반기부터 약 18개월 동안 GFT 수출이 감소했으나, 글로벌 봉제품 수요가 회복하면서 2024년 1~9월 GF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90% 증가한 106억 2,356만 달러 기록
- 캄보디아 GFT 부문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 EU, 캐나다, 일본, 영국 등

- 캄보디아 정부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점 육성 노력으로 제조업 다각화 및 수출 품목 다변화 추세
 -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자동차·이륜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관련 수출 품목 비중 증가세

〈GFT·고부가가치 제조업 관련 수출 비중 변화〉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3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GFT	11,054,546	75.0	11,453,224	50.6
고부가가치 제조업	1,130,545	7.7	3,875,081	17.1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 국내 일부 기업도 와이어링 하네스, 전기 오토바이 등 제조업 진출 중

□ 건설 및 부동산업

-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된 후로 더디게 회복 중

* 건설 및 부동산업 성장률(%) : (건설업) '22년 0.5 → '23년 1.1 (부동산업) '22년 0.2 → '23년 0.5

- 단, 중국의 對캄보디아 인프라 및 건설 부문 투자가 2023년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연 또는 중단된 프로젝트가 점차 재개되는 추세
- 기 활성화 중인 내국인 투자와의 시너지 효과로 건설 및 부동산업 경기 활성화 기대

〈캄보디아 건설 프로젝트 승인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6월)
승인 건수	4,888	4,841	4,303	4,276	3,207	1,642
금액	11,437	7,753	5,333	2,972	5,400	2,530

자료: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 2024년 상반기 철강 수입이 급증하는 등 건설기자재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7억 5,300만 달러 수입

□ 관광업

- 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추가 유치 전망
 -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545만 명을 기록했으며, 2024년 1~8월 외국인 관광객 수는 429만 명 이상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캄보디아 외국인 관광객 유입 동향〉

(단위: 천 명, %)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1~8월)
관광객 수	1,306	196	2,277	5,453	4,291
증감률	-80.2	-85.0	1,058.6	239.5	22.5

자료: 캄보디아 관광부

- 시엠립 신공항 개소, 신규 호텔 증가 등 관광·서비스업 인프라 개선으로 관광객 증가세
 - 2023년 10월 시엠립 공항* 개소로 유명 관광 지역 관광객 증가, 2025년 프놈펜 신공항(Techo Takhmao International Airport) 완공 및 개장 시 관광객 유입 확대 기대
 - * 신공항 게이트 수 38개, 승객 처리량 2024년 700만 명에서 2040년 1,200만 명 예상

- 국별 외국인 관광객은 태국, 베트남, 중국, 라오스, 미국, 한국 순
 - 주요국 관광객 모두 2022년 대비 6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 중

〈2023년 주요국별 외국인 관광객 유입 동향〉

(단위: 명, %, %)

구분	태국	베트남	중국	라오스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관광객 수	1,820,460	1,019,812	547,798	372,285	184,870	170,171	127,178
비중	33.4	18.7	10.0	6.8	3.4	3.1	2.3
증감률	113.3	119.8	412.6	302.0	98.0	165.7	68.1

자료: 캄보디아 관광부

□ 금융업

- **금융권 총 자산 및 신용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자본적정성 비율(CAR, Capital Adequacy Ratio) 충족 및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 금융 안정성 유지 중**
 - 2023년 금융권 총 자산은 전년 대비 8.6%, 신용 성장률은 4.8% 증가하며 성장세 둔화. 단, 예금 성장률은 13.1%로 회복세
 - * 2022년 총 자산, 신용, 예금 성장률 : (자산) 11.5%, (신용) 4.8%, (예금) 13.1%
 - (CAR) 상업은행은 22.7%, 소액금융기관은 25.4%를 기록하며 규제 기준인 15%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유동성) 상업은행은 167.6%, 소액금융 예금취급기관은 333.3%로 규제 기준인 100%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고객의 여신, 예금 인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
- **단, 2023년 신용 성장세 둔화로 부실 대출 비율(NPLR)이 급증하고, 부실 대출에 대한 충당금 증가로 자산수익률(ROA) 및 자기자본수익률(ROE)이 감소하는 등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및 유의 필요**
 - 상업은행의 NPLR은 5.4%로 전년 대비 급증, ROA와 ROE는 각 0.7% 및 3.8%로 감소
 - * 2022년 상업은행의 NPLR, ROA, ROE : (NPLR) 3.1%, (ROA) 1.4%, (ROE) 7.0%
 - 소액금융기관의 NPLR은 6.7%로 전년 대비 급증, ROA와 ROE는 각 1.5% 및 6.0%로 감소
 - * 2022년 소액금융기관의 NPLR, ROA, ROE : (NPLR) 2.5%, (ROA) 3.0%, (ROE) 13.6%
- **핀테크 발전,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바콩(Bakong)’ 사용 활성화로 인근국과 협의하여 서비스 확장 예정**
 - *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QR 코드 활용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여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과의 협약 체결로 기 바콩 서비스 사용 가능, 인도·일본·중국 등과도 논의 중으로 추후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서비스 확산 전망

□ 소매 유통 및 소비시장 트렌드

- **디지털 전환 및 물류 인프라 개선으로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서비스 증가**
 -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제품을 구입 및 소비하는 트렌드에서 중국, 미국 등 제조국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 증가
 - * 주요 직구 플랫폼 : (중국) Ali Express, Taobao, (미국) Amazon, Ebay
 - 관련 직구 물품 물류 서비스 및 구매대행 서비스 증가 추세
- **헬스케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중산층·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헬스케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며 헬스장, 요가 및 필라테스, 격투장 등 신규 스포츠 센터 확산

라. 정책·규제 환경

□ (국가 발전) 오각 전략 1단계(Pentagonal Strategy Phase 1)

- (목표) 캄보디아는 이전 정부의 사각 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계승하고 국가 발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인 오각 전략 1단계를 발표

* 캄보디아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의제는 삼각 전략(1998~2003) 및 사각 전략(2004~2023)을 거쳐 변화하는 국가 및 국제적 상황에 맞게 오각 전략으로 발전

- 오각 전략은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국(upper middle-income status), 2050년까지 고소득국(high-income status)에 진입하겠다는 ‘2050 캄보디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 향후 25년간 5단계에 걸친 성장(Growth), 고용(Employment), 공평(Equity), 효율(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추진이 주요 목표

- (내용) 인적자본 개발, 경제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민간 부문과 고용의 발전,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발전, 디지털 경제·사회의 발전이 5대 핵심 우선순위로 채택

- 사각 전략에 분야별 세부 전략 추가 및 워딩 변화로 중점 추진사항 강조

* 사각 전략에서 경제 다각화를 위한 세부 전략 중 하나인 디지털 부문이 핵심 우선순위로 추가 및 세부 전략 구체화로 팬데믹 기간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술에 대한 관심 확대 의미

〈오각 전략의 5대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별 5대 세부 전략〉

우선순위	세부 전략
인적자본 개발	1) 교육·과학·기술·스포츠의 질적 향상
	2) 기술 훈련
	3) 국민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
	4) 사회 보호 시스템 및 식량 시스템 강화
	5) 도덕성·공정성·포용성을 갖춘 교양사회 시민으로서 자질 강화
경제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1) 경제 핵심 부문의 발전 및 새로운 성장 원천 개발
	2) 산업단지·농산물가공단지·자유무역지역 등 특별경제구역의 효율성 및 투자 유인 강화
	3) 운송·물류·에너지·수자원·디지털 부문의 연결성 및 효율성 향상
	4) 사업 및 투자 환경 개선
	5) 투자 자원을 위한 자금조달 매커니즘 및 금융상품 혁신
민간 부문과 고용의 발전	1) 노동시장의 발전
	2) 영세중소기업(MSME)·스타트업·기업가정신 촉진 및 비공식 경제의 공식 경제화
	3) PPP(민관협력) 강화
	4) 경쟁 촉진
	5) 은행업 및 비은행금융업의 강화

우선순위	세부 전략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발전	1) 인구 배당 효과 최대화, 인구 변화 예측 및 인권에 기반한 정책 대응 강화, 성평등 추진
	2)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3) 도시 관리 및 현대화 강화
	4) 천연자원·문화유산·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
	5)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준비, 녹색경제(Green Economy) 촉진
디지털 경제·사회의 발전	1) 디지털정부 구축 및 디지털 시민 형성
	2)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기업, 전자상거래, 디지털 혁신 생태계 개발
	3)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개발
	4)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성 구축
	5) 금융기술의 개발

자료: KB국민은행

□ (산업 발전) 2015~2025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

• (목표) 경제 다각화, 경쟁력 강화, 생산성 촉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산업 발전 정책**

- 2025년까지 2차산업의 GDP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그 중 제조업을 20%로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 개편 및 강화 추진
- 2025년까지 전체 수출 비중에서 비봉제 제품을 15%로, 가공 농산물을 12%로 확대하는 등 산업 다각화 및 수출 품목 다변화 노력
- 중소기업 등록률을 80~95%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관리체계 강화 및 육성

• (내용)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중소기업 확대 및 현대화,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 추진

-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정비, 경제특구 입주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제공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 사업 자금 조달에 용이한 금융 시스템 개발, 과학 분야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 (제도 개선) 수출 보험 제도 수립, 조세 정책 정비, 노동법원 신설 등 기업 친화적 제도 수립
-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 및 수도 공급, 주요 산업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원활한 기업 경영환경 마련

〈2015~2025 산업발전정책 주요 전략 및 세부 내용〉

- | | |
|---|--|
| <p>※ 투자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환경 개선 • 특별경제구역(SEZ) 개발 •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p>※ 규제 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촉진 및 수출 확대 • 산업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강화 • 세금 납부 촉진 • 노동시장 개발 | <p>※ 중소기업(SMEs) 확대 및 현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등록률 확대 및 회계 실태 개선 • 농수산업 개발 촉진 <p>※ 지원 정책 간 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 과학, 기술, 혁신 촉진 •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개발 • 자원 조달 촉진 |
|---|--|

자료: 캄보디아 정부

□ (제조업 고부가가치) 자동차 및 전자 부문 발전 로드맵 (Cambodia Automotive and Electronics Sectors Development Roadmap)

• (목표) 캄보디아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투자 유치 및 고속연·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및 전자 부문을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 후 발전 로드맵 발표

- 자동차 및 전자 부품 관련 고부가가치 생태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캄보디아를 자동차 및 전자 부품 생산 허브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기술

* 현재 캄보디아 자동차 및 전자 부문은 수출 주도형 단순·노동집약적 부품 생산에 집중

〈자동차 및 전자 부문 개발 경로 및 목표〉

분야	내용
자동차	- (1단계) 와이어 하네스, 자동차 시트, 자동차 전장 부품(센서, 스위치, 기초 통신 부품 등) * 5년간 추진 - (2단계) 라디에이터, 냉각 시스템, 전장 부품, 안전 부품, 전기차 부품(컨버터, 인버터, 통제장치, 전기 모터, 배터리 팩 등) * 10년간 추진
전자	- (1단계) 케이블, 커넥터, PCB 어셈블리 등 * 5년간 추진 - (2단계) 소비자 가전, 산업용 및 5G 네트워크 관련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항공 및 방산 부품, 의료 테크 분야 * 10년간 추진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내용) 범부처 전략 및 조율, 전문인력 확보, 인프라 및 무역 환경 개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로드맵 이행

- 캄보디아는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태국·베트남 등 주요 자동차 제조 및 조립 허브와 가까운 전략적 위치, 주요 수출 시장과의 무역 협정 등 활용에 유리

- 로드맵을 통해 향후 가치사슬 변화에서 오는 기회 활용,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산업 기반 다각화·현대화, 숙련 인력 기술 및 전문성 향상 등의 효과 기대

* 2027년까지 자동차 부문 수출 5억 달러 확대 및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전자 부문 수출 16억 달러 확대 및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전망

□ (디지털) 2021~2035 디지털 경제 및 사회정책 프레임워크 (Cambodia Digital Economy and Society Policy Framework 2021~2035)

- (목표) 뉴노멀을 기반으로 새로운 캄보디아 경제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사회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구축
 - 인터넷, 통신,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시설의 개발과 디지털 안전 및 보안 향상을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의 신뢰성 기반 구축 추진
 - 기반 조성 후 디지털 시민 창출, 디지털 정부 구축, 디지털 비즈니스 도입 중점
- (내용) 디지털 기반 구축, 디지털 채택, 디지털 전환 등 세 가지 주요 원칙 수립 및 이행
 - (기반 구축) ICT 인프라 개발, 전문인력 육성, 제도적·법적 프레임워크 설계 등을 통한 견고한 기반 마련
 - (채택) 인적 자원 개발 지속 및 혁신 강화, 국가 시스템 및 공공 서비스 현대화, 지역 및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실현 노력
 - (전환) 강력한 기반, 역량 있는 인적 자원, 유리한 생태계 환경, 기술 활용이 높은 참여형 디지털 사회를 토대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캄보디아 정부 발표 기타 주요 정책

정책명(영문)	발표시기	비고
(에너지) 2022~2030 국가 에너지 효율 정책 (National Energy Efficiency Policy 2022~2030)	2022.11	
(친환경) 2023~2028 환경 순환 정책 (Circular Strategy on Environment 2023~2028)	2023.11	
(물류) 2023 캄보디아 복합운송물류시스템 기본 계획 (Comprehensive Master Plan on Cambodia Intermodal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2023~2033)	2023.08	
(고부가가치) 2024~2030 전기자동차 개발 국가 정책 (National Policy on Electric Vehicle Development 2024~2030)	2024.07	

□ (규제) ESG 동향

• 캄보디아 정부는 민간 부문 대상 ESG 경영 원칙 준수를 지속 촉구 중

-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및 기술 사용 등 ESG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민간 부문에 ESG 원칙 준수를 지속 독려
- 특히 농업 및 의류·신발·여행용품 제조 부문에서 ESG 원칙 준수 강조
- 캄보디아 섬유·의류·신발·여행용품협회도 제조 부문에서 친환경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인권 및 지속가능성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구 사항이며, 캄보디아 내 제조업체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국제기구 및 민간 단체도 캄보디아 ESG 준수를 위해 협력 및 지원 중

- 캄보디아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는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의 지원 및 캄보디아 섬유·의류·신발·여행용품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맞춤형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허브' 지원센터 출범
- 캄보디아 수출 부문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전망

• 전문가 및 민간 기업들도 ESG의 중요성 인식 및 실천 방안 모색 중

- 현지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 필요성 대두, 기업들 ESG 성공 실천 사례 홍보 등 ESG 관련 인식 및 실천 확대 중

2. 시장 분석

캄보디아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로 역내 연결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해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인근국과의 공급망 협력 및 동남아 대체 생산기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임.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여권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지속, 각종 무역 특혜 및 무역협정 등으로 해외 기업의 투자 진출에 유리한 환경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인프라 개선 가속화에 따른 역내 연결성 강화

• 동남아 중심부 위치, 역내 인근국 시장 진출 및 접근성 용이

-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 국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축 등으로 물류비 및 시간 절감, 주요국과의 연결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관광·무역·투자 활성화 기대
- 태국·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 특별경제구역(SEZ)을 조성하여 인근국 간 교류 제고
* (캄-태) 포이펫 특별경제구역(Poipet SEZ), (캄-베) 바벳 특별경제구역 (Bavet SEZ)

• 국가 간 협력 및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개선 가속화

-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재개. 특히, 2024년 Funan Techo 운하* 건설 공식화
* 프놈펜-태국만에 이르는 180km 규모의 초대형 운하 건설 계획, 개통 시 현재 교역의 베트남 남부 항만 의존도(現 33%)를 10% 초반대로 낮추고 운송비 70% 절감 및 통행료 수익 창출 전망
- (아세안) CLMV 협력, GMS 개발, ACMECS 등 아세안 소재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토 개발 지속 예정
* (CLMV 협력)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협력, (GMS 개발) 메콩강 유역 개발, (ACMECS)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 협력 전략
- (캄보디아) 2023~2033 캄보디아 복합운송물류시스템 기본계획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 추진 및 예정

• 동남아 진출 교두보 및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

- 캄보디아 정부 중점 육성 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對중국 수출 혹은 탈중국 기업의 대체 생산기지 및 인접국 플러스 원 제조기지로 적합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 지속

- 신투자법 및 시행령 발표, 특별경제구역 운영 등 외국인 투자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외국인 투자 시 자국민 투자자와 동일하게 100% 외국인 소유권 허용
 - 적격 투자 프로젝트(QIP)로 등록된 프로젝트 대상 각종 면세 혜택 제공, 투자 신고 절차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투자자 편의 제고
 - 특별경제구역 운영을 통해 인프라, 유틸리티, 세금, 통관, 수출입 등 인센티브 제공 중

- **달러 통용 경제 및 자유로운 외화 송금으로 자금 조달 용이**

- 불필요한 환전 손실 및 환율에 대한 환차손이 없으며, 수입대금 및 국제 용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사용료 및 수수료, 이익 송금, 법인 철수 시 투자 자본의 송환 등 외환거래에 제한이 없음

* 단, 10,000달러 이상 반출 시 중앙은행에 해당 사유 신고 必

□ 젊은 인구구조 및 중산층 부상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기대

- **경제 활동 인구(15~64세) 지속 증가 및 유입으로 산업 종사 노동력 풍부**

- 평균 연령 27세의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2021~2050년 기간 동안 캄보디아 노동인구는 24% 증가할 예정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전망

* 동 기간 베트남은 1% 증가, 태국은 23% 감소 예상 (자료: Mekong Strategic Capital)

- 특히, 소비를 주도하는 젊은 중산층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으로 한국 기업 및 상품의 시장 진출에 유리

-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중산층 부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도시화율 증가 예상**

- 2022년 기준 중산층의 비율은 46%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 특히 부동산의 주 소비층으로 도시 외곽 및 지방 지역 도시화율 상승 등 기여

* 2022년 기준 캄보디아의 도시화율 25.11%, 평균 1%의 도시화율 기록

나. 교역

□ 캄보디아 대외 교역 동향

- **봉제·비봉제 제조업 성장, 농산물 시장 확대 등으로 대외 교역 성장세**

- 의류·신발·가방 등 봉제품 수출, 전자·전기·자전거 등 비봉제 제조업 성장, 농산물 시장 확대 등으로 지난 5년간 캄보디아 수출 꾸준히 증가

- 특히, 봉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회복하며 2024년 1~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0%, 수입은 15.9% 증가

- 국내 산업 기반이 약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중간재 및 생활 소비재 등 대부분 수입 의존도가 매우 크며,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기록 중

〈캄보디아 대외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9월)
수출 (증감률)	14,749 (16.8)	18,342 (24.4)	19,296 (5.2)	22,251 (15.2)	22,645 (1.8)	19,833 (17.0)
수입 (증감률)	20,172 (16.8)	19,100 (-5.3)	28,687 (50.2)	25,460 (-11.3)	24,183 (-5.0)	21,107 (15.9)
교역 (증감률)	34,921 (16.8)	37,442 (7.2)	47,983 (28.2)	47,711 (-0.6)	46,828 (-1.9)	40,940 (16.4)
무역수지	-5,423	-758	-9,391	-3,209	-1,538	-1,274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 캄보디아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매년 전체 교역의 25% 내외 비중 차지

- 캄보디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전체 교역의 약 15~20% 비중으로 교역 상대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 일본, 캐나다 등이 뒤를 이음

* 2024년 1~8월 기준 한국은 캄보디아의 13번째 교역 상대국

〈캄보디아 주요 교역 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21		2022		2023		2024(1~9월)	
	국가명	교역액 (비중)	국가명	교역액 (비중)	국가명	교역액 (비중)	국가명	교역액 (비중)
1	중국	11,195 (23.3)	중국	11,686 (22.3)	중국	12,265 (26.2)	중국	11,147 (27.2)
2	미국	7,826 (16.3)	미국	9,281 (17.7)	미국	9,155 (19.5)	미국	7,801 (19.1)
3	싱가포르	5,217 (10.9)	베트남	6,136 (11.7)	베트남	6,585 (14.1)	베트남	5,819 (14.2)
4	베트남	5,134 (10.7)	태국	4,664 (8.9)	태국	3,713 (7.9)	태국	3,169 (7.7)
5	태국	4,084 (8.5)	싱가포르	3,323 (6.3)	일본	1,799 (3.8)	일본	1,595 (3.9)
6	일본	1,729 (3.6)	일본	1,948 (3.7)	인도네시아	1,087 (2.3)	캐나다	896 (2.2)
7	대만	1,077 (2.2)	스위스	1,445 (2.8)	독일	1,011 (2.2)	스페인	822 (2.0)
8	독일	1,045 (2.2)	독일	1,247 (2.4)	캐나다	940 (2.0)	인도네시아	802 (2.0)
9	캐나다	995 (2.1)	캐나다	1,154 (2.2)	싱가포르	917 (2.0)	영국	786 (1.9)
10	스위스	974 (2.0)	대만	1,153 (2.2)	영국	873 (1.9)	독일	785 (1.9)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 캄보디아 수출 동향

- 최대 수출 시장은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며, 베트남, 중국, 일본, 태국, 캐나다, EU, 영국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은 캄보디아 수출 상대국 순위에서도 10위권 중반을 기록 중

〈캄보디아 주요 수출 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21		2022		2023		2024(1~9월)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출액 (비중)
1	미국	7,486 (38.8)	미국	8,969 (39.9)	미국	8,897 (39.3)	미국	7,608 (38.4)
2	베트남	1,991 (10.3)	베트남	2,169 (9.6)	베트남	2,973 (13.1)	베트남	2,727 (13.8)
3	중국	1,510 (7.8)	중국	1,240 (5.5)	중국	1,479 (6.5)	중국	1,279 (6.4)
4	일본	1,088 (5.7)	일본	1,173 (5.2)	일본	1,176 (5.2)	일본	1,057 (5.3)
5	캐나다	955 (4.9)	캐나다	1,121 (5.0)	캐나다	870 (3.8)	캐나다	849 (4.3)
6	독일	881 (4.6)	독일	1,084 (4.8)	태국	818 (3.6)	스페인	803 (4.1)
7	영국	732 (3.8)	영국	886 (3.9)	독일	816 (3.6)	영국	746 (3.8)
8	태국	620 (3.2)	태국	832 (3.7)	영국	796 (3.5)	독일	672 (3.4)
9	벨기에	508 (2.6)	벨기에	642 (2.9)	스페인	713 (3.2)	태국	646 (3.3)
10	네덜란드	441 (2.3)	네덜란드	553 (2.5)	네덜란드	565 (2.5)	네덜란드	582 (2.9)

주: 캄보디아 관세청 무역통계와 실제 교역 상대국 공식 통계 간 상당한 편차 존재하므로, 한-캄 교역은 한국무역협회 통계 참조 필요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 주요 수출 품목은 봉제품(의류 등), 농산물(곡물, 과일, 견과류 등), 전기기기·부품 등이며, 봉제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 내외 차지

〈캄보디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23				2024.1~9월			
	품목	수출액	증감률	비중	품목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편물 의류	5,479	-14.0	24.2	편물 의류	5,035	21.5	25.4
2	전기기기 및 부품	3,135	56.5	13.8	편물제외 의류	2,354	31.9	11.9
3	편물제외 의류	2,390	-10.4	10.6	전기기기 및 부품	1,583	-36.1	8.0
4	곡물	1,748	45.1	7.7	여행용품	1,557	21.5	7.9
5	여행용품	1,708	-8.2	7.5	곡물	1,370	15.7	6.9
6	신발류	1,365	-21.4	6.0	신발류	1,214	22.4	6.1
7	고무	919	69.6	4.1	고무	1,025	78.3	5.2
8	가구 및 침구	890	-6.2	3.9	가구 및 침구	926	26.8	4.7
9	식용 채소 및 뿌리	666	52.6	2.9	과일 및 견과류	759	32.9	3.8
10	과일 및 견과류	662	17.8	2.9	식용 채소 및 뿌리	568	24.4	2.9
합계		22,645	1.8	-	합계	19,833	17.0	-

주: 캄보디아 관세청 무역통계와 실제 교역 상대국 공식 통계 간 상당한 편차 존재하므로, 한-캄 교역은 한국무역협회 통계 참조 필요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 캄보디아 수입 동향

- 최대 수입 상대국은 전체 수입의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한국 등이 뒤를 이음

〈캄보디아 주요 수입 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21		2022		2023		2024(1~9월)	
	국가명	수입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1	중국	9,674 (33.7)	중국	10,446 (34.9)	중국	10,786 (44.6)	중국	9,868 (46.8)
2	싱가포르	5,097 (17.8)	베트남	3,967 (13.2)	베트남	3,612 (14.9)	베트남	3,092 (14.6)
3	태국	3,463 (12.1)	태국	3,833 (12.8)	태국	2,895 (12.0)	태국	2,524 (12.0)
4	베트남	3,143 (11.0)	싱가포르	3,230 (10.8)	인도네시아	995 (4.1)	인도네시아	729 (3.5)

순위	2021		2022		2023		2024(1~9월)	
	국가명	수입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5	대만	980 (3.4)	대만	1,037 (3.5)	싱가포르	866 (3.6)	싱가포르	643 (3.0)
6	스위스	964 (3.4)	인도네시아	912 (3.0)	대만	661 (2.7)	말레이시아	534 (2.7)
7	홍콩	725 (2.5)	일본	775 (2.6)	일본	624 (2.6)	일본	538 (2.5)
8	일본	641 (2.2)	홍콩	764 (2.6)	말레이시아	527 (2.2)	대만	535 (2.5)
9	인도네시아	608 (2.1)	한국	545 (1.8)	한국	470 (1.9)	한국	386 (1.8)
10	한국	582 (2.0)	말레이시아	509 (1.7)	홍콩	269 (1.1)	홍콩	302 (1.4)

주: 캄보디아 관세청 무역통계와 실제 교역 상대국 공식 통계 간 상당한 편차 존재하므로, 한-캄 교역은 한국무역협회 통계 참조 필요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 주요 수입 품목은 연료, 봉제 원부자재(직물 등), 비봉제 제조업 중간재(전기기기·부품, 차량·부품, 기계·부품 등) 등으로 제조업을 위한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음

〈캄보디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23				2024.1~9월			
	품목	수입액	증감률	비중	품목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광물연료	3,388	-7.6	14.0	광물연료	2,938	15.6	13.9
2	편직물	2,597	-10.2	10.7	편직물	2,372	19.2	11.2
3	전기기기 및 부품	1,577	7.7	6.5	전기기기 및 부품	1,427	24.9	6.8
4	차량 및 부품	1,339	-43.6	5.5	기계류 및 부품	1,257	28.5	6.0
5	기계류 및 부품	1,307	-11.0	5.4	차량 및 부품	1,197	11.6	5.7
6	인조섬유	1,099	-8.4	4.5	인조섬유	979	21.1	4.6
7	플라스틱	1,072	-11.9	4.4	플라스틱	969	21.0	4.6
8	기타화학제품	986	66.2	4.1	알루미늄	564	17.4	2.7
9	알루미늄	615	-21.2	2.5	면	559	36.1	2.6
10	면	562	10.6	2.3	철강제품	542	42.7	2.6
	합계	24,183	-5.0	-	합계	21,107	15.9	-

주: 캄보디아 관세청 무역통계와 실제 교역 상대국 공식 통계 간 상당한 편차 존재하므로, 한-캄 교역은 한국무역협회 통계 참조 필요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 비관세 장벽

- **과거 수입 규제가 적어 對캄보디아 무역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경제 발전, 정부의 규제 강화 노력 등으로 비관세 장벽 점차 증가**
 - 정부 부처에서 품목별 인허가 등 규제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 식량 안전 및 농림업과 관련된 농림수산부, 중소기업과 관련된 산업과학혁신기술부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 수 증가
 -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캄보디아 비관세 장벽 유형은 무역 기술 장벽(TBT), 수출 장벽, 위생검역(SPS) 관련 조치, 비자동 수입 허가 등이며, 무역 기술 장벽이 전체의 약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최근 수입 허가 및 제품 등록 미비 제품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 사전 확인 및 준수 필요
- **이 외에도 불투명한 행정절차나 자의적인 품목 해석, 과다한 서류 요구, 이유 미상의 통관 지연이나 FTA 미적용 등 다양한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
 -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무역관이 문제 해결 위해 적극 지원 가능

□ 무역 특혜 및 무역협정 발효 현황

- **저개발국 대상 무역 특혜 활용으로 캄보디아산 제품 경쟁력 강화**
 - EU, 미국, 영국 등 주요 시장 수출 시 저개발국 대상 무관세 및 무쿼터 혜택 활용 가능
 - * (EU) EBA; Everything but Arms, (미국)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영국) DCTS;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 2023년 9월 말 기준 EU의 EBA 부분 철회 및 미국 GSP 만료 및 미갱신으로 혜택 일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캄보디아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 ** EU는 캄보디아의 인권 및 노동권 침해에 대한 규제로 EBA 부분 철회 시행(20.8월~)
 - ** 미국의 GSP는 2020년 12월 말로 만료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갱신을 기다리는 중
 - 단, 2029년 캄보디아의 최빈국 지위 졸업이 예상되는바, 무역 특혜 축소에 따른 대비책 마련 필요
- **총 11개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다양한 시장 접근에 유리**
 - 아세안 차원에서 16개국과 총 8개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캄보디아 단독으로는 한국, 중국, UAE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
 - * 캐나다, 인도, 일본, 유럽연합(EU), 파키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과의 양자·다자 무역협정 체결을 검토 중으로 향후 시장 다각화 기대

〈캄보디아 무역협정 체결 현황〉

아세안 차원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ASEAN-Australia and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대 (ASEAN-India Free Trade Area) -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 (ASEAN-China Free Trade Area) -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 (ASEAN-Korea Free Trade Area) -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 (ASEAN-Hong Kong, China Free Trade Agreement)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캄보디아 단독	- 캄보디아-중국 자유무역협정 (Cambodia-China Free Trade Agreement, 2022.1.1.) -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2022.12.1.) - 캄보디아-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ambodia-UA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다. 투자

□ 캄보디아 투자 진출 동향

- 2024년 상반기 캄보디아 투자 승인 건수는 190건, 신고 금액은 3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투자 승인 건수와 신고 금액은 각각 68%, 194% 증가
 - 중국의 對캄보디아 투자는 13억 8,900만 달러로 전체 투자 비중의 약 42.6%를 차지하며, 외국인 투자 비중 1위 기록
 - 한국은 전체 투자 비중의 약 0.5%인 1,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6위 투자국에 위치
- 캄보디아는 매년 내국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인근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에는 내국인 투자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

〈연도별 캄보디아 주요 투자국 동향 (승인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국가	신고액	비중	국가	신고액	비중	국가	신고액	비중
합계	3,229	100	합계	3,812	100	합계	3,257	100
캄보디아	2,078	64.37	중국	2,277	59.75	캄보디아	1,633	50.15
중국	913	28.28	캄보디아	1,096	28.76	중국	1,389	42.64
홍콩	111	3.45	대만	129	3.40	싱가포르	95	2.91
대만	57	1.78	홍콩	95	2.51	베트남	60	1.85
일본	29	0.91	말레이시아	91	2.39	인도	18	0.56
한국(6)	17	0.56	베트남	73	1.93	한국(6)	16	0.49
태국	8	0.28	한국(7)	21	0.56	미국	11	0.35
영국	6	0.21	싱가포르	10	0.29	말레이시아	6	0.19
말레이시아	5	0.18	태국	10	0.27	호주	6	0.18

주: 상기 통계는 신고액 기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와 상이함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2024년 상반기 세부 산업별 주요 투자 분야는 전기·전자, 전기 오토바이, 철강, 봉제 등이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투자 활성화 추세
 - 2023년의 경우 봉제, 농업, 시멘트, 에너지, 숙박업, 태양광 패널, 인프라, 통신 순으로 투자 신고

〈연도별 캄보디아 주요 투자 분야 (승인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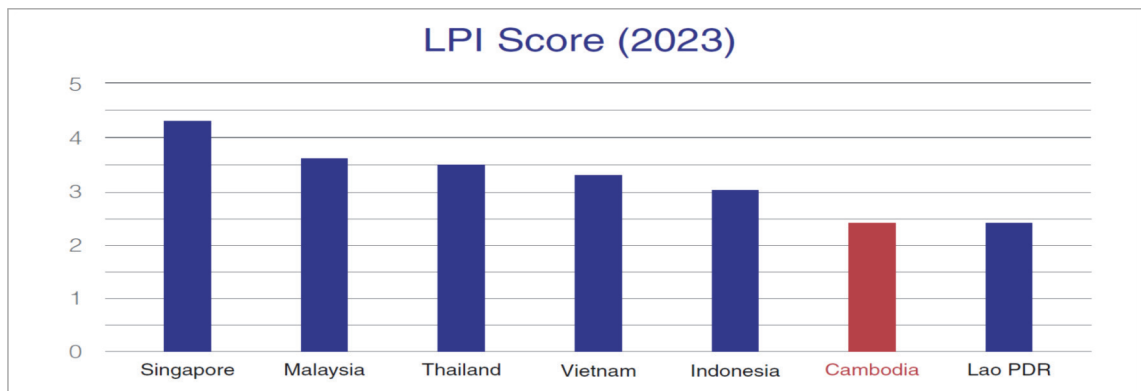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분야	프로젝트수	신고금액	분야	프로젝트수	신고금액	분야	프로젝트수	신고금액
합계	108	1,718	합계	132	3,229	합계	176	3,812
농업	11	97	농업	8	140	농업	13	183
엔지니어링	1	9	제조업	104	1,062	제조업	155	1,992
에너지	6	509	인프라	1	1,300	인프라	1	1,376
보건의료	4	28	기타	7	101	서비스	4	138
제조업	74	405	서비스	7	129	관광	3	122
기타	10	540	관광	5	496			
관광	2	127						

주: 2024년 주요 투자 분야별 세부 통계 미발간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투자 진출 진입 장벽

• 물류 리스크

- 캄보디아는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 지표에서 2.1점을 획득, 인근국에 비해 물류 인프라 열악
 - * LPI 지표는 5점 만점에 1점이 가장 낮고, 5점이 가장 높은 점수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 물류 인프라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고, 관련 물류 비용도 높아 제조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높은 전기요금**

- 캄보디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은 베트남 및 태국 등 인근국 대비 높은 수준

* (캄보디아) USD 0.14~0.17/kWh, (베트남) USD 0.04~0.12/kWh, (태국) USD 0.01~0.08/kWh

- **숙련된 인력 부족**

- 교육 기반이 미흡하여 숙련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생산성 낮음
-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가 어려우며, 인재 육성에 오랜 시간 소요

- **투명성이 부족한 행정절차**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3 부패인식지수'에서 캄보디아는 180개국 중 158위를 기록, 전년 대비 8계단 하락
-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련 기관들의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결정이 잦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캄보디아 교역 동향

-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액은 2019년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3년 10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22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 경신
 - 2023년 對캄보디아 수출은 5억 7,500만 달러(△10.4%), 수입은 4억 7,700만 달러(+16.7%)로 무역수지 9,800만 달러 흑자 기록
- 2024년 1~9월 양국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약 8억 8,600만 달러 기록
 - 對캄보디아 수출은 12.1% 증가한 4억 8,900만 달러, 수입은 6.6% 증가한 3억 9,700만 달러

〈한국-캄보디아 연도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9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567 (-18.6)	624 (10.0)	642 (2.9)	575 (-10.4)	489 (12.1)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18 (-5.3)	342 (7.4)	409 (19.7)	477 (16.7)	397 (6.6)
교역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885 (-14.3)	966 (9.0)	1,051 (8.8)	1,052 (0.2)	886 (9.6)
무역수지	249	282	233	98	9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캄보디아 품목별 교역 동향

- (수출) 2024년 1~9월 對캄보디아 상위 10대 수출 품목은 화장품, 기타가죽, 음료, 편직물, 승용차, 전선, 기타의직물, 기타섬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의약품 순
 - (소비재) 화장품, 음료, 낙농품 등 K-소비재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 유지
 - (생산재) 글로벌 봉제품 수요 회복으로 봉제 원부자재 수출 증가세, 전선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륜차·자동차 부품 등 모빌리티 부분품도 수출 활성화
 - 화물자동차는 현지 건설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수출 실적 저조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명	2022		2023		2024(1~9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화장품	29	29.1	46	59.5	53	54.9
2	기타가죽	61	28.3	48	-20.7	52	32.4
3	음료	74	1.9	54	-26.8	49	24.1
4	편직물	70	-2.1	63	-0.0	44	-6.6
5	승용차	49	70.8	53	6.7	44	3.9
6	전선	12	49.2	24	96.9	23	44.7
7	기타의직물	25	-2.1	21	-14.5	19	17.8
8	기타섬유제품	20	-17.4	22	11.5	14	-15.9
9	평판디스플레이	9	24.2	14	59.4	13	36.3
10	의약품	21	-59.1	19	-8.0	13	-17.8
기타		272	-	211	-	165	-
총 계		642	2.9	575	-10.4	489	12.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입) 2024년 1~9월 對캄보디아 상위 10대 수입 품목은 편직제의류, 제어용케이블, 신발, 직물제의류, 천연고무, 가방, 알루미늄, 펌프, 의류 액세서리, 우산 및 양산 순

- (소비재) 신발, 직물제의류, 가방 등 봉제품 수요 증가세, 과일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할당관세 혜택 연장으로 과실류 수입 급증
- (생산재) 와이어 하네스(제어용케이블),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펌프류 등 수입 증가

〈對캄보디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명	2022		2023		2024(1~9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편직제의류	124	13.8	153	23.1	111	-12.7
2	제어용케이블	49	36.4	80	61.8	79	36.9
3	신발	71	31.7	81	13.1	64	3.6
4	직물제의류	65	14.9	54	-16.3	54	21
5	천연고무	26	41.6	28	6.5	19	-7.4
6	가방	24	0.8	23	-3.7	18	10.1
7	알루미늄과및스크랩	12	24.0	11	-8.9	11	40.5
8	펌프	2	-10.0	4	80.8	7	192.7
9	의류 액세서리	5	63.7	5	10.1	3	-12.8
10	우산 및 양산	2	102.4	3	46.2	3	3.8
기타		28	-	35	-	28	-
총 계		409	19.7	477	16.7	397	6.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무역협정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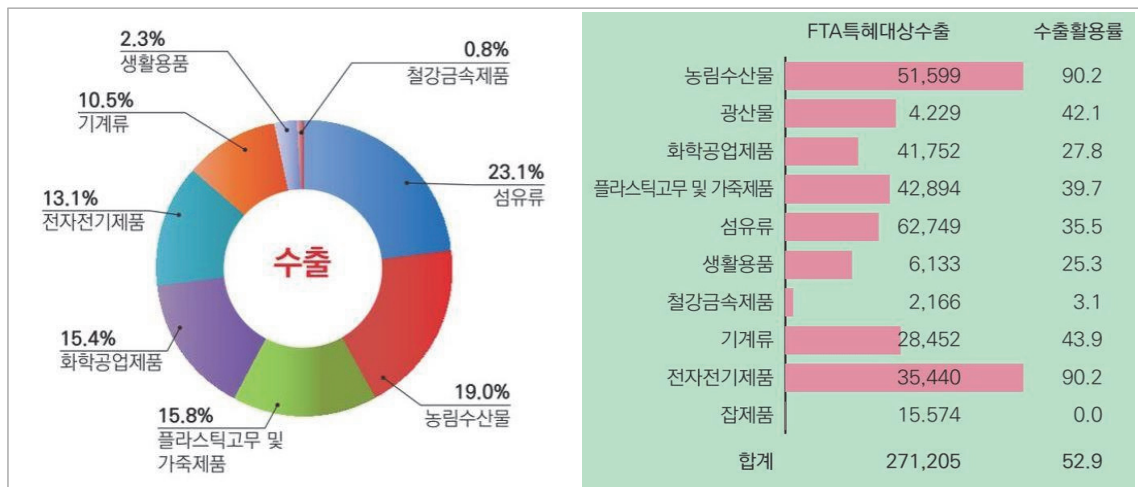
- 한-아세안 FTA, RCEP, 한-캄 FTA 등 다수의 무역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로 국내 기업 진출에 유리
 - FTA별 협정세율 비교 및 유리한 협정 이용으로 수출 제품 경쟁력 강화
 - 무역 특혜 및 무역협정 활용하여 제3국 수출을 위한 캄보디아 투자 진출도 가능
- * 한-캄 이중과세방지협정 2021.1.29., 한-캄 FTA 2022.12.1. 발효

• 2024년 2분기 누계 기준 한-캄 FTA 활용률은 52.9% 기록하며 수출 활용률 증가세

* 2023년 한-캄 FTA 활용률 : 약 30%

- 농림수산물 90.2%, 전기·전자제품 90.2%, 플라스틱·가죽 39.7%, 섬유류 35.5%, 화학공업제품 27.8% 등 순으로 수출 활용

〈한-캄보디아 FTA 산업별 특혜 대상 비중 및 활용 현황〉



자료: 한국 관세청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 ※ (배경) 한-아세안 FTA 기반 상호주의 품목 및 민감·초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철폐
 - *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 : (한국) 95.6%, (캄보디아) 93.8%
- ※ (내용) 총 6단계의 관세 철폐 일정으로 구분하며 즉시철폐 260개, 5년 70개, 10년 74개, 15년 899개, 20년 35개, 20년 내 50% 감축 102개 등으로 설정
- ※ (현황) 딸기, 사과, 포도, 조미김 등 수출 증가. 자동차 및 부품, 건설중장비 등 활용률 제고 전망

□ 공급망

• 캄보디아산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HS Code 400121)가 한국의 주요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

-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탄성체(고무)의 주요 원료로 국내 생산이 불가하여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3개국에서 수입
- 2022~2023년 對캄보디아 수입액이 800만 달러로 한국의 스모크드 시트 총 수입액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단, 2024년 상반기 기준 태국산 수입이 가장 큰 비중 점유 중

* 對국가별 수입액(달러) : (태국) 200만, (캄보디아) 70만

- 스모크드 시트 글로벌 수출량 중 태국산이 60%, 캄보디아산이 2%로 태국산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체 공급선으로 캄보디아산 수입

□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성공 사례) E사

- E사가 국내 편의점 최초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데 이어, 세 번째 해외 진출 지역으로 캄보디아에 매장을 설립함. E사는 몽골, 베트남 등에 진출한 타사들과 달리 '틈새 공략지'를 설정해 그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바 있음
- 캄보디아는 국내 편의점 업계가 미진출한 지역 중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E사는 2023년 5월 KOTRA 프놈펜 무역관으로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캄보디아 시장 진출의 물꼬를 트기 시작함. 이후 무역관에서 7월까지 다수의 업체를 소개하였고, 캄보디아 파트너사에서 E사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양측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
- E사는 2023년 8월 Saison Brother Holding, 한림건축그룹과 3자 MOU를 체결했고, 2023년 12월 E사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합작사인 Saihan Partners사를 통해 E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본계약을 체결
- 2024년 6월, 캄보디아 1호점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프놈펜 병쟁공 지역에 개소. E사는 25세 이하의 젊은 인구가 풍부한 캄보디아 시장을 감안하여 5년 이내 현지에서 100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
- 무역관에서는 캄보디아 가맹점 운영방식에 대해 자문해주었고, E사를 시작으로 K-유통이 캄보디아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 협조할 예정

◎ (성공 사례) A사

- A사는 세계 최초로 문구업에 프랜차이즈를 접목 후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음. 국내에 약 8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문구류 시장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몽골, 베트남 등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음. 캄보디아는 세 번째 해외 진출 지역으로 2023년 8월에 첫 매장 오픈
- A사는 CAM-KHIN TRADING 측에 캄보디아 시장을 일괄 독점 계약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일임
- 2019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주관으로 열린 한국상품전에 양사 간 유의미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상품전 이후에도 두 기업은 지속적으로 F/U 상담을 진행
- 코로나 기간 중에도 무역관은 수출입 지연에 따른 수입절차, 관세, 통관, 세무와 관련된 내용을 바이어 측에 안내하였으며, 코로나가 종식된 2021년 8월 양 기관 간 MOU 체결을 지원
- 2023년 8월에 설립된 매장은 프놈펜 쇼핑 중심가인 이온몰 앞에 100여 평 규모의 종합쇼핑몰 형태로 운영 중
- A사는 현지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KOTRA 프놈펜 무역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무역관에서는 K-문구가 캄보디아에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중

나. 투자 진출

□ 캄보디아 투자 동향

- 2023년 기준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전체 28위, 아세안 국가 중 5번째* 투자 대상국
 - *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직접투자 누적액은 52억 5,000만 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 기록, 누적 신규법인 수는 1,015개사 기록

〈한국의 對캄보디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투자 계(누적)	4,075	1,017	8,304	7,029	5,255
2017	153	27	243	229	137
2018	156	32	436	227	461
2019	154	26	182	237	244
2020	153	19	*985	244	933
2021	115	14	620	188	546
2022	142	13	419	184	309
2023	162	28	165	224	254
2024년 2분기	81	9	99	97	66

주: 누적은 1992~2024년 2분기 합산 금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업종별 對캄보디아 누적 투자 기준 금융 및 보험업이 24억 4,000만 달러로 1위
 - 이어서 부동산업(8억 6,000만 달러), 건설업(8억 4,000만 달러), 제조업(5억 7,000만 달러), 농업·임업·어업(1억 4,000만 달러), 도·소매업(1억 2,000만 달러) 등 순

〈업종별 對캄보디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업종 대분류	1992~2024년 2분기 누계			
	현지법인	지점	지사	투자금액
금융 및 보험업	29	1	3	2,447.01
부동산업	169	-	-	858.37
건설업	102	12	8	848.99
제조업	214	4	1	573.13

업종 대분류	1992~2024년 2분기 누계			
	현지법인	지점	지사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3	-	-	144.58
도매 및 소매업	165	2	-	127.37
숙박 및 음식점업	49	1	-	68.23
광업	15	-	-	49.73
정보통신업	34	-	1	36.9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6	2	-	37.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2	-	-	23.0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6	3	6	12.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	3	7.10
운수 및 창고업	12	1	-	7.04
교육 서비스업	9	-	1	6.0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	-	-	4.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2.6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	-	0.20
N/A	-	-	2	0.01
합계	964	26	25	5,254.84
	1,0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국내 기업 현지 진출 현황

-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금융업이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 및 부동산업 등 분야 투자 진출도 활발
 -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진출해 있으며, 유무상 원조 사업 발주 사업 수행을 위해 국내의 건설사 다수 진출 중
- 제조업의 경우 봉제공장 위주로 진출했으나 이후 자동차 조립공장, 와이어 하네스 부품 공장 등 진출 확대
 - 2023년 자동차 부품 공장인 유라하네스 공장 신규 설립
- 한류의 영향으로 유통, 식음료 분야에 대한 꾸준한 진출 수요
 - 2023년 알파문구, 2024년 이마트24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캄보디아에 진출
 - 2024년 더본코리아, 프놈펜에 이어 시아누크빌에 본가 2호 매장 신설

〈업종별 진출 기업 현황〉

업종	대표 기업
금융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대한특수은행, KB프라삭은행(KB국민은행), DGB은행(대구은행), 프놈펜상업은행(전북은행), 부영크메르은행, 유안타증권 등
봉제	태영, 캄보유니솔, 남광, 시몬느, 소아플러쉬 토이, 삼일캄보, 제이에스 리더 콜렉션, 인수아, 파크 핸드백 등
자동차	현대캐피탈, 경신, 유라하네스, 대한오토 등
건설	한신공영, 정도엔지니어링, 부영크메르, 캄칠보전력, CACPM, 희림종합건설, 한림건축그룹 등
농업	현대아그로, 도테크 캄보디아 등
IT	LG전자, 캄인텔, 모바일씨앤씨 등
유통	이마트24, 알파문구, 하나유통 등

주: 2024년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에 등재된 기업은 115개사

다. 협력 유망 분야

① (B2B) 자동차·전자 등 미래산업 분야

□ 캄보디아의 수출 다변화 정책에 따른 고부가가치 분야 제조 육성

- 캄보디아는 2029년 최빈개도국(LDC) 졸업이 예상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로 누리던 각종 면세 혜택 지위 상실로 인하여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
 - 섬유·봉제 등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자동차, 전자 등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을 육성
 - 2018년 의류·신발·여행용품 수출이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의 약 50%로 비중 감소. 정부 차원의 신산업 분야 육성 필요
-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 중장기 경제성장,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해 ‘자동차 및 전자부문 발전 로드맵’(22년)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로드맵에 따라 관련 제품의 제조 및 수출 허브로 도약, 수출액을 약 2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2만 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로드맵 작성) CDC 등 13개 정부 부처 참여, 영국 정부 및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작성 지원

* (로드맵 내용) 비전, 부문별 5개년 개발 경로 설정, 범정부 전략 및 협조, 인력 양성 및 관련 인프라 개발, 무역 촉진, 자문위원회 설립, 액션 플랜 수립 등

□ 태국·베트남 ‘플러스 원’ 전략을 활용한 캄보디아 제조 공급망 구축

- 캄보디아 저임금 노동인력을 활용하여 인근 제조 허브 국가인 태국, 베트남과 연계한 ‘플러스 원’ 전략을 활용, 캄보디아 내 제조 공급망을 구축
 - 자동차 시트 및 와이어 하네스 등 저부가가치 제품을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후 인근국에 수출하여 최종 완제품을 조립하는 방안
 - 향후 양국 정례협의체(대사관-캄보디아개발위원회)를 통해 도출될 특별경제구역(SEZ) 내 캄보디아 정부에서 육성하는 유망 분야 기업 진출 가능
- 자동차, 전자 부문을 포함한 기초 제조 부품 조립 공정부터 순차적으로 진출

② (G2B)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분야

□ 양국 정부 간 협력 우선순위에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

- 캄보디아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이며,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음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2% 감축 선언, 2021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TS4CN) 수립, 2023년 환경순환정책(2023~2028) 발표 등
 - 2024년 파리협정 6조 매뉴얼 발표*, 2024년 캄보디아 기후변화 전략계획(2024~2033) 발표 예정 등
- 캄보디아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서 최근 우리 정부와 ‘한-캄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해각서(MOU)’를 체결(2024년), 캄보디아 현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파리협정 6.2조를 통해 국외감축실적(ITMO)을 양자 간 발급·거래 가능

MOU	주요 내용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캄보디아 환경부 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	• 실무작업반 구성을 통한 파리협정 제6조 관련 협력사업 발굴 •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기준 개발 등 추진 • 상대국 제도 정비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 중인 사업의 향후 지위 보장 등

□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가능

- 캄보디아 정부에서 인정한 국제감축사업 승인기준*을 충족하며,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감축 투자 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캄보디아 시장 진출

* (국제감축사업 승인기준) ① 캄보디아, NDC상 조건부 감축사업, ② 국외 이전되지 않는 감축 실적이 일부 있어야 함, ③ 사업 유효기간은 6.4조 가이드라인을 준수, ④ 적격한 메커니즘(6.2조, VCM)을 이용, ⑤ 실질성, 검증 가능성, 추가성 입증, ⑥ '21년 이후 감축 실적만 승인, ⑦ 환경 건전성 준수, ⑧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준수

- 봉제업 등 기 진출 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패널) 설치, 산업공정 내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탄소 감축분 정부 판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G 등)* 활용 가능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30년부터 코스피 모든 상장사 대상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

- 신규 진출 기업의 경우 산업, 에너지 등 분야와 관련하여 해외 진출 레퍼런스가 있으면서 F/S가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현지 파트너와 공동 추진

- 에너지, 산업, 교통, 폐기물, REDD+ 등 캄보디아 NDC에 명기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캄보디아 경제성장 발전 기여,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

※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안정 속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다대

※ 노동인구 지속 유입, 한류 확산, 환경에 대한 인식 고조 등 사회·경제 트렌드를 활용한 전략적 시장 진출 필요

1. PEST 분석

Political 정치정책	• (정권) 신정부 출범 1년, 정치적 안정 속 광범위한 개혁 추진 • (정책) 오각 전략(1단계) 및 산업별 중장기 로드맵 발표 - 최빈국 지위 줄임을 대비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 (세법) 투자법 개정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령 정비 • (통상) 다자·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통상협력 확대
Economic 경제	• (성장) 팬데믹 이후 글로벌 교역 반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회복 - 경제성장률 : ('23) 5.6% → ('24E) 6.0% → ('25F) 6.3% • (물가) 2~3%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수준 지속 전망 • (환율) USD 1 ≒ Riel 4,100의 안정적인 환율 유지 예상 • (노동) 최저임금 상승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에 따른 인력 육성 및 생산성 제고 필요
Social 사회문화	• (인구구조) 젊은 인구구조로 노동인구 지속 유입, 중산층 확대 예상 • (라이프스타일) 온라인·디지털로 사회·경제 전반의 유입 가속화 • (환경) 소득 수준 대비 지속가능성, 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관련 산업 지속 성장 예상 • (한류) K-콘텐츠 확산에 따라 한국 문화·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Technological 기술	• (디지털 인프라) 모바일·인터넷 보급률 확대에 따른 캄보디아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 (스타트업) 정부 지원, 민간 투자 확대에 따른 스타트업 생태계 활발 • (핀테크) Bakong 등 디지털 결제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금융 부문 빠르게 확산 • (보안)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사이버 보안 중요성 부각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정치적 안정 및 개혁 추진에 따른 투자 여건 양호
- 인구구조 및 경제성장 따른 소비시장 확대
-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한 디지털 접근성 제고

약 점(Weakness)

-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및 금융 구조
- 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기술인력 부족
- 인프라 부족으로 주변국 대비 높은 물류 비용
- 에너지 수급 불균형 및 높은 에너지 비용

기 회(Opportunity)

- 정부 정책에 따른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 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
- 한류 확산에 따른 K-소비재 수요 증가

위 험(Threat)

- 중국 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 외국 기업 진출 증가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
-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유출 위험 증가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젊은 층, 중산층 대상 온라인 중심 K-소비재 마케팅 강화 • 성장하는 친환경 시장 진출 확대	K-소비재 맞춤형 마케팅
ST 전략 (강점 활용)	• 양국 간 중점 협력 산업 분야 진출 추진 •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지닌 분야 중심으로 전략적 시장 선점 추진	전략 분야 중심 투자 진출 다각화
WO 전략 (기회 포착)	• 현지 기술인력 육성을 활용한 ICT 시장 진출 • 신재생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용 시장 진출	민관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진출
WT 전략 (위험 대응)	• 정부의 산업구조 재편을 활용한 투자 진출 • 에너지, 물류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수요 모니터링 강화	친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소비재	① 新소비층 맞춤형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고객 접근성 제고 • 숏폼 형태의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K-소비재 인기 재상승 • 캄보디아 新소비층(청년층·중산층)의 높은 콘텐츠·트렌드 민감도와 편의성을 선호하는 특성을 고려, 맞춤형 온·오프라인 전략 수립
투자 진출 (제조업)	②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다각화에 따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신정부 주도의 빠른 정책 시행에 따라 투자 여건 개선 전망 • 고부가가치 제조업(자동차, 전자 부품) 분야 투자 진출
친환경	③ 녹색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비즈니스 기회 발굴 • 캄보디아 중장기 에너지 정책 핵심 요인으로 친환경 부상, 국제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적극 추진 예정 • 녹색에너지 전환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국 진출 활발
IT	④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에 따른 시장 성장 • 공공/민간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산업 육성 추진 • 디지털정부 및 인프라,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시장 성장 예상
양국 협력 강화 및 유망 분야 진출 확대	단기적으로 유망 산업(소비재, IT)에 대한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요에 기반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기회 창출

3-1. (소비재) 新소비층 맞춤형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고객 접근성 제고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숏폼 형태의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K-소비재 인기 재상승 중
- ※ 캄보디아 新소비층(청년층·중산층)의 높은 콘텐츠·트렌드 민감도와 편의성을 선호하는 특성을 고려, 맞춤형 온·오프라인 전략 수립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新소비층(청년층·중산층)의 빠른 성장으로 소비자 구매력 확대
 - (인구)경제 활동 인구(15~59세)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 차지하고 증가세 지속

〈2019~2023년 캄보디아 경제 활동 인구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경제활동인구	9,964	61.7	10,104	61.8	10,235	61.9	10,364	62.0	10,501	62.2

주: 2023년 추정치
자료: World Fact Book, CIA

- (구매력)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소폭 하락했지만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2023년 1인당 GDP는 2019년 대비 약 20% 증가

〈2019~2023년 캄보디아 1인당 GDP(PPP) 동향〉

(단위: USD)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인당 GDP(PPP)	4,544	4,415	4,562	5,070	5,460

주: 2022년, 2023년은 추정치
자료: EIU

- e-콘텐츠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글로벌 브랜드, 특히 K-소비재에 대한 관심 지속
 - 디지털·모바일 사용 환경에 친숙하여 SNS 활용도가 높아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관심 확대
 - * 2022년 SNS별 이용자 수 : (Facebook) 1,175만 명, (Instagram) 184만 명, (TikTok) 74만 명 등
 - 한류 콘텐츠가 숏폼 형태로 재가공 및 확산되어 K-소비재에 대한 인기 재상승
 - 기존 인기 품목인 화장품, 라면 외에도 조제분유 등 신규 인기 K-소비재 확대

〈2019~2023년 한국의 對캄보디아 조제분유 수출 현황〉

(단위: 천 USD)

품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제분유	2,724	4,049	6,347	9,039	12,02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K-소비재) 젊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격, 품질, 이미지 모두 만족하는 한국산 화장품 및 조제분유 등의 소비재 유망

- (화장품)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의 구매력이 확대되고, 슛폼 형태의 K-뷰티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고품질·다양성 등의 경쟁력 있는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등 인기
- (조제분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모유 수유를 위한 시간적 여유 감소로 조제분유 수요 다대. 단, 유럽산은 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가격으로 가격경쟁력·품질 모두 갖춘 한국산 조제분유 선호 증가세

※ 캄보디아-태국 시장 간 분석을 통해 화장품 및 조제분유 등 K-소비재의 캄보디아 진출 가능성 확인

- 시장 규모에 따른 국가 간 유망품목 선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 캄보디아와 문화·경제적 유사성이 높은 태국과 비교
- * 동남아 선진시장(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내 점유율이 높은 한국 제품이 향후 신흥시장(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으로 확산 전망
- 품목별 한국 진출 기업 수 및 수출 금액 기준으로 향후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 도출
- 도출 결과 화장품, 과실류, 조제분유, 시약 등 총 13개 품목 발굴

• (온·오프라인 마케팅) 新소비층 대상 젊은 마케팅을 통한 온·오프라인 접근

- 슛폼 콘텐츠에 익숙하고 간편함을 중시하므로, 짧은 시간 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광고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 접근성 제고
- 현대적 유통 채널(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 대한 선호*와 소비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 쇼핑몰 내 팝업스토어 및 시연회 등 활용

** 쇼핑물 방문 주기 : (1달 1번) 47%, (1주일 1번) 21%, (1주일 2번↑) 10%, (3달 1번) 8% 등

** (독립적 구매 선호) 86%, (지인 추천을 통한 구매 선호) 14%

3-2. (투자 진출) 캄 정부의 산업 다각화에 따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임가공 위주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산업발전정책 2015~2025, 신투자법('21년) 및 신투자법 시행령('23년), 자동차 및 전자 부문 발전 로드맵('22년) 등을 근거로 추진 중

※ 태국, 베트남 등 인근국과 밀접한 프놈펜, 바벳, 포이펏 지역 진출 검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태핑 가능성 확보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투자 환경) 캄보디아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산업 다각화 개선 노력

- '산업발전정책 2015~2025'에 따라 2025년까지 캄보디아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주도형 산업으로 변화

* 2차산업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제조업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산업구조 개편 및 강화 진행

- 투자권 보장과 인센티브 확대 내용의 신투자법(2021년) 및 동법 시행령(2023년) 발효, 세금 납부 등 행정 전산화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 투자활동 유형에 따른 투자 적격 프로젝트(QIP) 분류, 고부가가치 기술일수록 인센티브 적용 확대

① 그룹 1 - 항공우주, 철도, 조선, 기계장비, 전기전자, 태양광, IT 등 (9년 법인세 면제)

② 그룹 2 - 식품 제조·가공, 비료, 제지, 원부자재 등 (6년 법인세 면제)

③ 그룹 3 - 섬유·봉제, 가구, 보석세공, 숙박·쇼핑몰 등 (3년 법인세 면제)

• (고부가가치 제조업) 자동차·전자 부품 등 비봉제 산업의 투자 진출 확대

- 캄보디아 정부에서 자동차·전자 부품 등 산업 다각화를 위해 2022년 '자동차 및 전자 부문 발전 로드맵'을 발표

* 동 로드맵에 따라 관련 제품의 제조 및 수출 허브로 도약, 수출액을 약 2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2만 2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목표

- 중국과의 커플링 강화 및 지정학적으로 동남아 거점지역의 요충지 역할을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조업 투자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신산업 테스트베드) 고부가가치 주요 산업별 신정부의 투자 환경 개선 동향 모니터링 및 기회 발굴**

- 캄보디아 정부는 전기차, 전자 부품 등 유망 산업 중심으로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

*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TADA) 운영 중인 엠블(MVL)사는 캄보디아에 Onion Mobility社를 설립해, 전기 뚝뚝(Tuk-Tuk) 제조공장과 충전소·커뮤니티센터인 어니언 메가스테이션(Onion Megastation)을 설립

- **(플러스 원 전략) 인근 제조 허브인 태국·베트남과 연계된 ‘플러스 원’ 형태의 GVC를 구축, 인근국과 비교하여 캄보디아의 저렴한 임대료 및 인건비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 예) 자동차 좌석(봉제업과 유사) 및 와이어 하네스 등 저숙련 제품의 캄보디아 제조 및 태국·베트남에서의 완성차 조립 등 연계 활용 방안 구상

3-3. (친환경) 녹색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비즈니스 기회 발굴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친환경이 캄보디아 정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적극 추진 예정
- 녹색 에너지 전환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캄보디아는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녹색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 중임
 - 20XX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5%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연간 전기 수요를 8.6% 감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도 적극적인 편으로, 2024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먼저 파리협정 6조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MOU 체결 완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녹색 기술) 캄보디아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신투자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수혜 분야로 동 분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투자 진출 확대 예상
 - * 경쟁국 사례: 시엠립 신공항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 중국 국영기업 Y사는 추후 태양열, 풍력 등 캄보디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24년 9월)
-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 6조 매뉴얼 등 준비된 제도적 기반 하에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캄보디아의 여건 및 니즈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 추진 필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진출 사례〉

- ※ 국내 기업 V사는 캄보디아에 e-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형태로 추진 중
 - 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 및 충전소 등 보급을 통해 캄보디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는 사업

3-4. (IT)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에 따른 시장 성장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중장기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민간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산업 육성 추진 중
- ※ (공공) 디지털정부 및 인프라, (민간)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시장 성장 예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책) 캄보디아 新정부는 기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4각 전략’에 디지털 부문이 새로 추가된 ‘5각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 비전으로 제시(2023년 8월)
 - 디지털정부 구축, 디지털 경제 및 전자상거래 육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수립하고 공공·민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중
- (시장) 높은 모바일 가입률, 젊은 인구구조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결제, 전자상거래 등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7~2025년 기간 5배 이상 성장 예상(Statista)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디지털정부) 캄보디아 정부의 digitalization 정책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전 부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화, 공공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등 현지 여건이 열악하나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 진출 유망
 - 현지 IT 인력의 경우, 한국과 비교 시 기술 격차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건비 수준이 크게 낮은바, 현지 인력을 활용한 투자 진출 형태의 진출도 고려 필요
- (핀테크)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Bakong) 도입을 계기로, 전자결제 등 캄보디아 핀테크 시장이 급성장 중임
 - 특히 캄보디아는 상업은행 58개,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 87개 등 시장 규모에 비해 금융기관 수가 많고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바, IT 서비스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IT 분야 진출 사례〉

- ※ 국내 기업 M사는 캄보디아에 지사 형태로 진출하여,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들과의 핀테크를 중심으로 다수의 현지 IT 프로젝트 참여
- ※ 국내 기업 U사는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하여, 메신저 기반으로 결제, 쇼핑, 콘텐츠 등을 지원하는 캄보디아 전용 모바일 플랫폼을 출시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유아용품 (기저귀, 조제분유 등)	선정사유	캄보디아 출산율 감소 및 경제성장으로 유아용품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
	시장동향	저가 보급형 제품 위주 시장이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경쟁력이 높음
	경쟁동향	기저귀의 경우 베트남산이 전체 수입액의 약 40%를 차지, 조제분유는 캄보디아 생산업체가 없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주로 수입
	진출방안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품질이 보장된 제품의 인기가 높음에 따라 프랑스, 일본과 같이 현지 진출을 통해 물류비용 및 세금을 절약하여 경쟁우위 모색
품목명 2		
 반려동물용품	선정사유	캄보디아인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용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시장동향	반려견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는 반려동물 제품 생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량 수입을 통해 유통
	경쟁동향	애견용 사료, 간식, 수의약품 등이 태국, 중국, 미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진출방안	K-푸드의 인기를 바탕으로 향후 성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용품의 공동 진출 모색
품목명 3		
 욕실용품 (샤워기, 비데 등)	선정사유	주거용 건물 사업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욕실용품 수요 지속 증가
	시장동향	2024년 1,7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로 예상(Statista), 향후 5년간 연간 8.8% 상승이 예상되는 등 GDP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
	경쟁동향	미국, 중국, 일본, 태국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프리미엄 시장과 중저가 시장으로 양분화
	진출방안	현지 주요 건설사, 컨설턴트를 통한 대형 B2B 시장과 프리미엄 수요를 바탕으로 한 소형 B2C 시장으로 분리하여 접근
품목명 4		
 스킨케어 화장품	선정사유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의 對캄보디아 수출 지속 증가. 한국산 화장품은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지에서 인기 구가
	시장동향	스킨·로션, 마스크팩, 크림 등 다양한 종류의 스킨케어 제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어 쉽게 접근 가능
	경쟁동향	2023년 스킨케어 제품 수입액 중 한국산 화장품이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제품이 뒤를 잇고 있음
	진출방안	우수한 성분 및 뛰어난 피부 개선 효과 등 K-뷰티의 우수성 강조 필요.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패키지 사용.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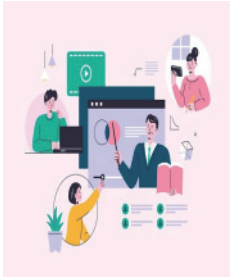
품목명 5	
 과일 (딸기, 포도, 사과 등)	선정사유 구매력 상승으로 캄보디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고품질 과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시장동향 한·캄 FTA로 딸기, 포도, 사과 등의 기본세율이 7%에서 0%로 인하, 최근 한국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수출 유망
	경쟁동향 중국, 일본산 등과 경쟁 중이며, 특히 저가 중국산 과일이 한국어로 표기되어 수입되는 사례 급증
	진출방안 캄푸드 등 현지 유명 식품 전시회에 참가 홍보, 국내 과일의 프리미엄을 강조하기 위해 현지 SNS나 인플루언서를 활용
품목명 6	
 의약품	선정사유 소득 증대로 인한 의료 지출 증가,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의료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의약품 수입 지속 증가
	시장동향 과거 인도, 파키스탄 등 저가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나 품질 및 성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가의 제품 수요도 확대.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경쟁동향 인도, 태국, 프랑스산 의약품이 수입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잇고 있음
	진출방안 제품의 성분 및 품질 강조 필요. 현지 유통사를 통해 상세한 복약 지도 및 안내 필요
품목명 7	
 의료기기	선정사유 정부의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의료 부문 민간 투자 증가로 의료기기 수요 지속 증가 중
	시장동향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의료 분야 투자 증가에 따라 의료 서비스와 관련 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 초음파·엑스레이 등의 영상진단장비, 치과용 의료기기 등 다양한 품목 인기
	경쟁동향 對캄보디아 의료기기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진출방안 현지 의료 기관이 주관하는 세미나 등 행사 후원, 수출 후 지속적 교육 및 관리, 제품 등록 지원 등
품목명 8	
 조제분유	선정사유 캄보디아의 출산율은 평균 2.5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시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분유 시장 성장 전망
	시장동향 캄보디아 조제분유 시장 규모는 약 8,000만 달러 내외로 지속 성장 중
	경쟁동향 인도네시아, 프랑스,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산 등 제품이 경쟁 중
	진출방안 현지 소비자들은 영유아식품 구매 시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므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강조 필요. 제품 등록 및 라벨링 등 현지 규정 준수 필요

품목명 9		
 인스턴트 식품 (라면 등)	선정사유	캄보디아의 라면 소비량 많고 한국산 제품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음
	시장동향	라면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캄보디아 라면 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경쟁동향	태국산 제품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등의 제품이 경쟁 중
	진출방안	한국 문화나 음식에 관심 많은 현지 소비자 특성을 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사 필요. 현지 식품 전시회 등 참가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가능
품목명 10		
 소형 가전 (청소기, 믹서기 등)	선정사유	소득 증가 및 주거 방식 현대화로 소형 가전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
	시장동향	프놈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적 주거공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용 소형 가전 시장 규모가 지속하여 성장하고 있음
	경쟁동향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싱가포르, 태국, 한국산 제품이 경쟁 중.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급·고성능·우수한 디자인 등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진출방안	현지 주요 전자제품 유통망 입점을 통해 제품 인지도 확대 필요.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상이나 디자인, 기능 등 조사 필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핀테크	선정사유	캄보디아는 높은 모바일 가입률, 디지털 결제 시스템(Bakong) 도입을 계기로, 전자결제 등 캄보디아 핀테크 시장이 급성장 중임
	시장동향	바콩은 '24년을 기점으로 1천만 계좌를 달성하는 등 성인 대다수는 가입. 소매 전자결제액과 모바일 뱅킹 거래액도 각각 연평균 47%, 80%로 빠르게 증가
	경쟁동향	캄보디아는 상업은행 58개,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 87개 등 시장 규모에 비해 기관이 많아 관련 핀테크 서비스 경쟁이 치열
	진출방안	사용 편의성 및 높은 보안 등 타 기관 대비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초기 시장 확보에 주력
품목명 2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최근 캄보디아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의료 분야 투자 증가에 따라 의료 서비스와 관련 시설이 큰 폭으로 올라감
	시장동향	진료소 및 병원의 경우 '21년에 116개, '22년에 182개가 신설되는 등 '20년부터 꾸준히 증설, Orienda 국제병원 등 외국 병원 투자 프로젝트도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캄보디아 내 병원 진출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진출방안	태국 등 인근국 방문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필요
품목명 3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내수 확대, 구매력 증가, 현지 신규 쇼핑물 증가 등으로 식음료 등 프랜차이즈 입점 수요 확대. 젊은 중산층 부상으로 글로벌 프랜차이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시장동향	스타벅스, KFC, 피자헛 등 약 13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으며, 프랜차이즈 대부분 F&B. 태국, 미국 브랜드의 진출이 많으며, 최근 마포갈매기, 파riba게트 등 한국 프랜차이즈가 진출해 인기
	경쟁동향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인근 지역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치열한 경쟁으로 브랜드별 공격적인 마케팅 진행
	진출방안	기 진출 프랜차이즈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청년층을 타깃으로 품목 선정과 마케팅 필요

품목명 4		
에듀테크 	선정사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교육 시장이 발달되어 있음.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여 에듀테크 시장 지속 성장 전망
	시장동향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교과와 취업준비생을 위한 회계·IT 직업기술 등 다양한 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팬데믹 이후 교육 시장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추세
	경쟁동향	아직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다양한 스타트업이 관련 시장 진출 검토 중
	진출방안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및 교육열 등을 활용하여 타깃별 적합한 플랫폼 및 구독방식 등 개발 필요
품목명 5		
 친환경 프로젝트	선정사유	캄보디아 정부는 '23년 말 중장기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그린 투자 유치 및 에너지 전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시장동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경쟁동향	유럽, 중국에서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국제감축 분야의 경우 캄보디아는 싱가포르와 '23년 4월 MOU를 체결한 바 있음
	진출방안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간 체결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MOU('24.6월)에 근거하여 향후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통한 현지 진출 방안 모색 필요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신산업 (친환경·ICT·의료) 진출 지원	워킹 그룹(WG) 연계 온실가스 국제감축 세미나·상담회	4월/프놈펜
	동남아 ICT 로드쇼	6월/프놈펜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로드쇼	8월/프놈펜
소비재 분야 수출 지원	1무역관 1유망 협력사업	연중/프놈펜
데이터 기반 사업 효율화	데이터 활용 마케팅사업	6월/프놈펜
	디지털 마케팅사업	연중/프놈펜
FTA 활용·투자 진출 지원	FTA 활용 세미나	9월/프놈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정례협의체	연중/프놈펜

1 신산업(친환경·ICT·의료) 진출 지원

- (친환경) 2025 워킹 그룹(WG) 연계 온실가스 국제감축 세미나·상담회
 - 시기/장소 : 2025년 4월 / 캄보디아 (잠정)
 - 규모/분야 : 진출 기업 20개사 내외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폐기물
 - 협업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 내용 : 양자 워킹 그룹 회의, 투자 사업 설명회, 미니 파트너링 상담회
- (ICT) 2025 동남아 ICT 로드쇼
 - 시기/장소 : 2025년 6월 / 캄보디아 (잠정)
 - 규모/분야 : 10개사 내외/ IT 서비스, 핀테크, 전자상거래
 - 협업 기관 : 미정
 - 사업 내용 : ICT 서비스 분야 현지 B2B 상담회 개최
- (의료) 2025 캄보디아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로드쇼
 - 시기/장소 : 2025년 8월 / 캄보디아 (잠정)
 - 규모/분야 : 10개사 내외/ 의약품, 의료기기
 - 협업 기관 : 미정
 - 사업 내용 : 유망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 현지 B2B 상담회 개최

② 소비재 분야 수출 지원

•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 시기/장소 : 2025년 연중 / 캄보디아
- 규모/분야 : 유통망 5개사, 국내 기업 15개사 / 소비재 전반
- 추진 배경 : 캄보디아 온라인·SNS 플랫폼을 통한 K-소비재 구매 촉진
- 사업 내용 : 내수·초보기업 대상 현지 유통망 입점 및 판촉 지원

③ 데이터 기반 사업 효율화

• 2025 캄보디아 데이터 활용 마케팅 사업

- 시기/장소 : 2025년 6월 / 캄보디아 (잠정)
- 규모/분야 : 내수·초보기업 50개사 내외 / 전 품목
- 추진 배경 :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수출 성공률 최대화
- 사업 내용 : 데이터 분석, 시장성 검토,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상담

• 2025 디지털 마케팅 사업

- 시기/장소 : 연중 / 캄보디아 (잠정)
- 규모/분야 : 60개사 내외 / 분야 무관
- 사업 내용 : 온라인 전시관 개설, 리드 접수 및 검증, 바이어 연결 지원
- 활용 방법 : 수출 로드쇼 및 미니 한류 박람회 연계 추진

④ FTA 활용·투자 진출 지원

• FTA 활용 세미나

- 시기/장소 : 2025년 9월 / 캄보디아
- 규모/분야 : 진출 기업 40개사 내외 / FTA 활용 전반
- 협업 기관 : 캄보디아 관세청, 코참
- 사업 내용 : 캄보디아 수출입 통관 제도 및 유의사항, 관세 정책 동향, FTA 센터 안내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정례협의체**

- 시기/장소 : 2025년 상·하반기 각 1회 / 캄보디아
- 규모/분야 : 캄보디아 부총리 및 주요 부처, 대사관, 코참 / 투자 진출 전반
- 추진 배경 :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양국 간 합의사항 관련 후속조치 추진
- 사업 내용 : 기 진출 기업 경영 애로사항 해결, 신규 투자 유치 관련 논의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캄보디아 의료·미용 전시회 (Cambodia Health & Beauty Expo)	2025.8월	
캄보디아 봉제산업 전시회 (Cambodia International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Exhibition)	2025.8월	
캄보디아 식료품 전시회 (CamFood)	2025.9월	
캄보디아 건축·건설 전시회 (CamBuild)	2025.10월	
캄보디아 건설산업 전시회 (Cambodia Construction Industry Expo)	2025.12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오승준	과장	프놈펜 무역관	855-23-999-099	sjunoh@kotra.or.kr

2025 캄보디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